

## 피로사회 속 영재와 영재교육에 관한 담론

한 기 순

인천대학교

본고에서는 한병철(2012)이 제시하는 피로사회, 성과주의, 자기착취 등의 개념이 영재 및 영재교육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탐색한다. 특히 영재들의 완벽주의, 자신 및 주변으로부터의 높은 기대, 과제집착력, 다재다능함, 과도한 자기비판 등의 영재의 기질적 특성이 피로사회의 성과주의로부터 어떻게 영재를 고 위험군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또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영재들의 자살이슈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피로사회의 성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가를 고찰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본고는 피로사회의 성과주의가 왜 그리고 어떻게 창의성의 저하 및 궁극의 하류지향을 초래하며 이러한 현상이 영재들의 창의성 및 창의적 산출에 어떠한 관련성을 부여하는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끝으로 본고는 사색적 삶의 복원 등 피로사회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논의거리를 제시한다.

주제어: 피로사회, 성과주의, 자기착취, 영재

### I. 성과주의, 자기착취, 피로사회 그리고 영재

현대사회는 성취와 성과를 중시한다. 이처럼 능력주의의 원리는 오늘날 사회제도와 현대인들의 의식 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성과를 극도로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동시대인들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매일 매일 피로를 무릅쓰며 그야말로 피로하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국내 출판인들은 한병철의 <피로사회>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고 싶은 책으로 선정하였다. 성공 위주의 사회, 성과로 재단되는 삶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나라의 일꾼이 될 당선자가 돌아보기 바라는 출판인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잡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장정일, 2013).

신자유주의 사회, ‘성과사회’에서는 “너는 할 수 있다”는 정언이 지배하며 이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과와 업적을 강요당한다. 끊임없는 성과와 업적에 대한 강조는 타인의 착

취보다는 자기착취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나(한병철, 2012), 한편 ‘자기착취’로 보이는 현상이 실은 착취자와 착취사회에 저항할 수 없는 대다수 사람들이 현실에 적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로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 한국인들은 더욱더 이러한 현대사회의 피로사회 증후군에 절실히 공감한다. 그래서인지 작년 국내에 번역·소개된 한병철 독일 카를스루에대학 교수의 「피로사회」는 오늘날의 사회를 이러한 맥락에서 ‘성과사회’ ‘피로사회’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실 ‘피로사회’나 ‘성과사회’의 개념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저자도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Alain Ehrenberg(2010)가 먼저 「성과의 숭배」, 「소진된 자아: 우울증과 사회」를 집필한 바 있고 이미 이 책들에서 성과를 숭배하는 사회에서 소진되는 개인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룬 바 있다. Alain Ehrenberg 역시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우울증 이슈를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병철의 ‘피로사회’는 이 사회가 참으로 피로한 사회, 피로하게 만드는 사회라는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즉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사실 피로사회가 이야기하는 성과주의의 개념은 Honneth(2000)의 인정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Honneth는 사회적 인정이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그러한 인정행위가 왜 도덕적으로 정당한가를 밝히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의 정체성 유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될 때 가능하며, 긍정적 자기관계는 다시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에 의존한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 태도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타인의 긍정적 평가와 인정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성과주의 시스템 하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착취하고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달리는 것도 Honneth가 이야기하는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인정의 유보나 개인에 대한 무시는 개인의 정체성마저 붕괴시키는 파괴적인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더 성취를 추구하며 이는 결국 한병철이 피로사회에서 말하는 자기착취, 소진으로 이어진다.

한병철(2012)은 현대사회가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변화했다고 지적한다.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혹은 ‘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타인을 착취했다면, 현대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긍정성’에 사로잡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자본주의가 ‘타인 착취’에서 이윤 창출의 한계를 느끼자 사람들에게 ‘자유’를 던져주고 ‘자기 착취’를 유도하도록 진화했다고 분석한다(한국의철학회, 2012). 이러한 자기착취를 강조하는 성과사회 속에서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가 양산되고, 성과사회를 향한 과도한 자기 착취는 또한 극단적 피로와 탈진을 유발한다.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전환은 한국의 학교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자기주도의 학습의 강조, 입학사정관제로 상징되는 새로운 입시 전형의 도입 등은 학생들을 입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분명하고 복잡한 경쟁과 스스로를 끝없이 넘어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극심한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피로사회’의 역자인 김태환은 지적한다. 최근 소위 상위권 청소년들의 자살이나 잇단 카이스트 학생들의 자살은 이러

한 자기착취와 무관하지 않다(진선홍, 양태연, 한기순, 2012).

본고는 이러한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자기착취나 소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능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더 많다는 한병철(2012)의 지적에서 출발한다. 피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취압박감, 자기착취, 소진...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사회 속 영재들의 특성이나 이들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물론 모든 영재들이 성취압박감에서 시달리거나 소진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성과주의 사회에서도 성취압박감이나 자기 착취적 소진은 영재성보다 성향이나 기질 혹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재들이 보이는 완벽주의적 성향, 강한 성취욕구, 주변과 자신으로부터의 높은 기대감 등은 영재들로 하여금 피로사회의 한병철이 제기하는 자기착취와 소진적 삶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시사한다. 비록 일부이거나 소수의 영재들에게 해당되는 이슈일 수 있으나, 이들 영재들에게 성취압박감과 소진은 우울과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일 수 있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피로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과주의와 영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영재들의 창의성 발현을 위해 피로사회 극복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한 기대로 인해 극심한 성취압박과 자기착취에 노출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영재들에게 피로사회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건강하고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한다.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자 출발점이다.

## II. 피로사회와 영재: 그 관련성에 대하여

### 1. 영재도 피로사회의 희생자

현대사회에서 ‘당신은 얼마나 성취했느냐?’, 곧 성취(achievement)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성취를 못하는 사람은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되고, 성취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와 인정을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착취하고 이는 때로 소진과 탈진으로 이어진다. 피로사회의 희생자는 적은 양의 파이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일반인 집단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양의 파이를 차지하는 소수 능력자 집단도 희생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피로사회’는 ‘긍정성 과잉의 주체’이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탁월한 개인’(excellent individual)의 자리에 대한 요구, 주로 ‘탁월하게 뭔가를 성취한 개인들’을 호명한다(한병철, 2012). 다시 말해 자기착취나 소진이 무능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과도한 성취압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한병철은 탁월한 개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고 있었음을 성찰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성취 압박감 때문에 분배를 많이 받은 경영인,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전교 일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중학생이 자기착취로 소진해 쓰러지는 경우를 본다. 성취와 성공, 능력 있는 인간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우리 사회의 담론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점점 더 가열시킨다.

한병철은 피로사회 속 현대인들의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증후군(ADHD), 소진증후군 등이 ‘긍정성 과잉’의 징후라고 주장한다. 피로사회는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동기부여와

긍정성이 희열을 느끼게 하지만 이러한 긍정성이 나중엔 폭력과 강요로 변하고 결국엔 소진과 탈진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푸코의 ‘자기훈육’ 사회에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하지만 피로 사회의 자기착취는 성형수술에 비유할 수 있다. 성과에 희열을 느끼고 ‘더, 더, 더’를 외치고 결국 쓰러지고 만다. 보상을 받는 승자 역시 결국엔 쓰러진다(한겨레, 2012. 5월 15일자).

‘일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란 유머가 뼈가 있는 이유도 피로사회가 주장하는 성과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피로사회의 문제제기는 현대의 성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등이 된 사람 그리고 일등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모두가 희생자이고 치켜 쓰러진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피로사회의 성과주의 체제 하에서는 일등이 된 사람도 일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모두 다 ‘안녕’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학교와 교실에서 생산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은 아마도 영재들일 것이다. 영재들은 주어진 많은 과업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담과 함께 ‘잘’ 해야 된다는 심리적 부담을 일반학생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높은 성취를 보여온 영재들은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스스로의 기대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다. 영재라는 라벨이 주는 부담감은 실로 적지 않다. 영재라는 라벨은 다른 학생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다른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생님의 어려운 질문에도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영재들은 또래 친구들과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욕구와 부담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일반 학교 내에서 일반 친구들과의 경쟁도 쉽지 않지만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내 영재친구들과의 경쟁은 이들로 하여금 더욱 더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고 소진되게 만든다. 신자유주의 학교체제 하에서는 경쟁체제라기보다 오히려 승자가 독식하는 정글체제라는 이득재(2009)의 지적처럼, 영재아이들은 일반 교실에서 영재교육원에서 다른 친구들과는 때로는 자신보다 우수한 영재친구들을 이기고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착취하게 된다. 각 반에서, 각 학교에서, 또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친구들만 모여 있는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영재학교에서 영재 친구들과의 경쟁은 심리적으로도 대단히 위축되고 위협적일 수 있다. 물론 우수한 친구들과 나누는 교감이나 도전이 영재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이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처절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영재들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인 이들의 높은 과제집착력은 노력과 성과라는 명명으로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영재들은 그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을 넘어 투쟁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자기착취와 탈진에 가까운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영재들이 나타내는 다재다능함(multitalent) 역시 이들의 소진현상에 관여한다. 물론 모든 영재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재들이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아이의 다재다능함은 아이와 부모를 모두 피곤하게 한다. 잘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많으니 아이의 삶이 바쁘고 피곤해지는 것이다. 영재아이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이 아이와 부모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다재다능함으로 인해 해당 아이와 부모는 혼란스러움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다. 특정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들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영재들의 경우 이것저것을 시도해보다가 오히려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성취를 보이지 못하고 평범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영재가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영재이기에 겪어야 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 특히 완벽주의는 영재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다(윤여홍, 2003; Silverman, 1993). 영재들의 완벽주의적 성향 역시 이들의 과도한 성취와 소진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된다. 완벽주의는 성취를 향한 동기,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개인능력 이상의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이로 인한 과도한 시간 및 에너지 소비,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우울, 성공여부에 대한 과도한 불안에 빠지게 만들기도 한다(Hewitt & Flett, 1993).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영재아이들은 또한 종종 망원경식 사고(telescopic thinking)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영재들은 달성하지 못한 일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자신이 힘들게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시여기거나 그 성과를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완벽주의적 기질을 가진 영재들은 또한 다 이루지 못하면 아예 이루지 못한 것이라는 사고(all or nothing thinking)를 가져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점수, 완벽한 성취가 아니면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 영재아는 이러한 완벽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이미지의 달성 가능성을 두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호된 비판(Adderholdt-Eliott, 1987)을 가하기도 하며,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갖게 하여 낮은 자아 존중감과 우울증(Webb, Meckstroth, & Tolan, 1982; Whitmore, 1980)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들의 완벽주의자적 기질은 지나치게 목표지향적으로 사고하게 하고 과거집착적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기질이 있어 과거의 성과와 앞으로의 성취에 더욱 연연하는 경향이 있다. 칭찬과 성공경험 등이 영재의 완벽주의를 강화시키는데 이러한 완벽주의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능력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박혜진, 2001;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이렇듯 영재의 특성 중 하나인 완벽주의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부적응적으로 작용할 때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기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높은 기대감과 부담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해질 경우 우울이나 자살생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대단히 위험하다. 완벽주의자적 기질이 있는 영재들은 성과 그 이상의 성과를 강조하는 이 피로한 사회에 그들의 완벽주의자적 성향으로 인하여 더욱 더 피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영재들의 피로증후군을 설명하기 위해 부모 변인을 빼놓을 수 없다. 영재로 선발된 자신의 자녀가 앞으로도 영재의 라벨에 걸맞은 행보를 걸을 수 있도록 부모는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가 영재일 경우 부모는 아이를 위해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영재인데 부모인 내가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해 이 아이의 영재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이지연, 한기순, 2012). 그러나 이런 부모의 불안과 이로 인한 과도한 지원이 오히려 영재들의 재능발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어렸을 적부터 수학에 흥

미를 보이던 정훈(가명)이는 초등 4학년에 지역의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수학영재로 선발되었다. 아이가 수학영재로 선발되었으니 다음 단계는 경시와 올림피아드 준비라고 생각했던 부모는 아이를 관련학원에 등록을 시켰고 갑자기 어려워진 수업내용과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가 아예 수학에 흥미를 잃게 된 사례는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영재들은 영재이기 때문에 과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다. 아이의 영재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관심이 요구되는 것인데, 영재아들은 영재라는 이유로 매우 부적절한 ‘과도한’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영재의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가는 경우 아이가 앞선 만큼 안심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이지연, 한기순, 2012), 이러한 영재 부모의 불안과 부담은 영재 자녀들에게 성취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몇몇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부모들의 ‘취어짜기식’ 양육이 영재들의 소진, 탈진 증후군을 양산하기도 한다(이영미, 한기순, 2012). 우리나라의 경우 영재판별이 아닌 영재선발 시스템으로 영재들을 발굴,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영재가 아닌데 영재로 선발되어 학교와 부모로부터 자신의 능력 이상의 과도한 성과를 내도록 요구받고 있는 영재교육 대상자들이 적지 않음을 명시해야 한다. 영재들의 높은 성취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주변의 높은 기대 그리고 부족한 실패 경험은 자칫 이들로 하여금 안정을 추구하고,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도나 모험적인 행위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 습관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윤여홍, 2003; Dweck, 2007). 영재들의 이러한 성향은 이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학력저하와 창의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영재학생 자신이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 사이의 간극도 영재들의 소진에 기여하기도 한다. 해야 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많아도 영재 학생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오는 피로와 소진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영재들은 심각한 육체적, 심리적 우울과 소진을 경험할 수 있다. 관련하여 최근의 영재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한 연구는(성희경, 한기순, 2011) 많은 영재들이 자신의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것이 달라도 갈등 중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2. 영재의 자살을 통해서 본 피로사회의 단면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무성취나 저성취 혹은 일자리를 잃는 공포에서 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성취감에 대한 압박감, 즉 더 높고 더 큰 성취를 위해 쉽 없는 자기착취를 자극하는 것이다. 능력의 부족이 아닌 성과 자체에서 나오는 압박감이다. 독일에서는 몇 년 전 유명 국가대표 축구 골키퍼였던 로베르트 엔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미 많은 책을 내고 명성을 얻은 슬라보예 지젝(Slavoj Zizek)조차도 책을 못 쓰면 불안해서 자기착취를 한다고 한다(김성호, 2012). 최근 카이스트나 서울대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을 통해 자기착취가 자기학대로 이어져 죽음으로까지 연결됨을 우리는 보고 있다. 소위 상위권 청소년들의 자살 이유 중 상당 부분 역시 자기착취의 극단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 속에 경험하는 낮은 좌절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문화일보, 2011). 우수한 두뇌들을 모

아 놓은 집단 속에서의 경쟁은 너무나도 치열하다.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간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어떤 영재들은 끊임없이 좌절감과 무기력,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건 그동안 알던 내가 아니야’ 혹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등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또한 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영재들은 어릴 적부터의 거듭되는 성공의 경험과 실패 경험의 부족이나 부재로 인해 실패나 좌절을 맞닥뜨릴 경우 일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심리적 문제와 상실을 경험할 수 있다(Silverman, 1993). 새벽까지 과제를 준비하고 공부하며 시험을 보아도 성적이 하위권을 맴돈다면 그 이전까지 1등만 해 왔던 아이들의 자괴감 및 불안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부모님의 기대와 주변 사람의 기대, 사회에서 바라는 기대를 저버렸다는 자책감도 매우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86년 전교 1, 2등을 다투던 15살의 수재 여고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다. 이 사건은 소설과 영화로도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이 사건이 있는 지 벌써 30년이 다 되었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일 년에도 몇 번씩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올해인 2013년 3월 경북의 한 자율형사립고에서 전교 1등을 했다는 고1 학생이 자살을 암시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메시지다. 2011년 12월 이후 대구 14명, 경북에서 12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이게 비단 대구, 경북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증명이라도 하듯 며칠 후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 한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Korea Weekly, 2013. 4.13일자).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43.6명이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1.7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OECD 국 평균 수치인 12.9명을 크게 넘어서 OECD 자살률 1위, 심지어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경향신문,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재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12년에만 4명의 KAIST 학생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성취위주의 영재교육시스템이 젊은 영재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된 정확한 수치는 없으나 Webb(1994)은 영재들의 자살률이 일반학생들의 자살률을 훨씬 웃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영재들의 자살은 이제는 더 이상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매우 주요한 이슈이다.

영재들이 성적 부진이나 성취압력을 비판해 자살하는 경우 우리의 경쟁위주, 성취위주의 사회시스템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지만 동일한 문제와 이슈는 반복되고 있다. 영재아들은 일반아들에 비하여 더욱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등으로 인해 많은 학업 스트레스와 성취압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경험은 자살생각이나 시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Webb et al., 1982). 영재아동의 정서적 취약성

을 강조한 Hollingworth(1975)는 어른의 지능과 어린이의 정서를 함께 갖춘 아이에게는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개성과 소질보다는 학업성적으로 개인의 우열을 판별하는 교육제도 속에서 감성적으로 보통 아이들보다 예민한 영재들이 겪어야 할 중압감과 고뇌는 더 클 수 있다.

과도한 성취와 성과압력으로 인해 정상 수준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인식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한 예로, 초등학교 4학년 수학영재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선행학습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학입시를 위한 스펙을 쌓는다고 고등학생들이 수편의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일들도 드물지 않다. 4학년에 4학년 수준의 수학 공부를 하고, 학교 공부에만 충실한 영재학급 고등학생이 상대적 열등감과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상적 성과가 정상적 성과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비정상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이다.

세계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영재 여부를 떠나 미성취나 저성취(underachievement)보다 과성취(overachievement)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과도한 교육열을 가진 push부모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유치원을 시작하는 시기나 혹은 그 이전부터 과도한 조기교육에 시달리고 초, 중, 고 시절 내내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른보다 하루를 더 바쁘게 지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는 세계최장 정규학습 시간으로 해외토픽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직장도 드물 텐데, 우리의 고등학생들 중 상당수가 7시에 등교해 11시에 하교하고 부족한 공부를 사교육으로 보충하다 새벽에 잠이 들고 토요일 일요일도 주말을 반납한 채 공부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해외토픽감인지도 모른다. 영재 여부를 떠나 이 세계 어디를 뒤져도 한국 학생들보다 하루를 더 피곤하게 사는 학생들은 찾기 힘들 것이다.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에게 심지어 어른들은 요즘 아이들 공부를 안 해서 큰일이라고 지적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도 불행하고, 학부모도 불행하고, 교사도 불행하다. 영재나 영재학부모들의 상황도 더하면 더하지 예외일 수 없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영재아이들이 사교육, 자기주도학습, 온갖 스펙 준비로 무장된 채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담보 잡히고 과도한 자기착취를 감행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영재니까 괜찮아’, ‘영재니까 그래야 해’ 혹은 ‘영재니까 그래도 돼’는 적절한 변명이 아니다.

영재들은 그들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잘한다’, ‘잘한다’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아왔다. 이러한 칭찬과 격려 속에서 대부분의 많은 영재아동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여 다만 좀 바쁘게 살고 있을 뿐 ‘힘들다’ 혹은 ‘소진된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소진인지 모른다는 말이다. 하지만 자기착취가 과도해지는 어느 순간, 멈춰지는 바로 그 순간 ‘소진’이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온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착취하고 있었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소진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도 있다.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진이 아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는 소진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는 주체이다. 피로와 소진에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순응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진에 대한 성찰은 일종의 저항의 몸짓인데 소진에 대한 인식조차 부재한 것은 저항의 부재를 시사하는 것이다. 소진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대한 성찰이면서 동시에 사회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 지나친 성과와 경쟁구조에 대해 멈추어 생각해보아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순응주체를 양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대 사회의 양상, 피로의 연쇄로 이루어진 삶과 이러한 피로의 연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리 현대인들의 좌절감, 이러한 좌절감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잊으려는 노력,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순간 큰 우울과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에 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망각이라는 소진의 방어기제를 활용하면서 순응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뿐이다. 이렇게 과포화된 사회 속에서 과포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소진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거나 망각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소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한병철(2012)은 지금 우리는 규율사회를 지나 성과사회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규율사회의 원리가 부정성, 금지(해서는 안 된다)나 의무(해야 한다)이라면 성과사회의 지배원리는 긍정성(할 수 있다)이다. 능력의 긍정성은 당위의 부정성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에 이러한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변화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이 한병철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긍정성의 필연적 과잉이다. 과잉 긍정성이 부정성 못지않은 폭력을 유발하며 긍정성의 폭력은 박탈하기보다 포화시키고, 배제하기는 것이 아니라 고갈시키기 때문에 폭력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병철의 주장은 영재들의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재들은 그 특성상 자의적, 타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성에 더 자주, 더 많이 노출된다. 성과사회로 이동하기 이전부터 영재들의 지배원리 속에는 긍정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영재들의 과도한 과제집착력과 높은 흥미와 자기효능감은 이들의 이러한 긍정성을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의 이동은 영재들의 이러한 긍정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의 과잉 긍정성에 시달리던 영재들은 상대적으로 무언가를 더 할 수 있어야 하고 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변의 영재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혹시 이들이 창의적인 산출이 아닌 기존 지식의 재생산이나 암기, 혹은 단기적으로 보여주기식 학습이나 교육을 위해 애쓰고 있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재들의 높은 성취와 성과가 적어도 올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절실하다. 혹시 한병철(2013)의 지적처럼 방향조차 없는 까닭에 가속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성질의 ‘본질적 결핍의 텅빔을 포함한 성취’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III. 창의성 저하와 궁극의 하류지향을 초래하는 피로사회

피로사회는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경쟁지향적인 체제를 내면화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경쟁 상태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산을 제 1순위로 삼기 때문에 기존의 것의 재생산의 차원이 지 창조성의 생산 차원과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피로사회라는 현상은 이 사회의 강한 압력,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라, 생산하라는 압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과와 시간의 압력에 의한 생산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것 간의 피상적인 연합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무언가가 생산되기는 하나 전혀 새롭지 않은 것들만의 생산, 소모적인 생산, 착취적인 생산에 대한 우려이다. 일종의 생산에 대한 강박(증)이 결국은 깊이 있는 사고와 연구를 할 수 있는, 혹은 무언가 새로운 창조가 가능할 수 있는 토대 자체를 잠식할 위험성이 높다는 말이다. 어쩌면 이것이 피로사회가 영재에게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다. 생산에 대한 과도한 압력이 영재들로 하여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게 하기보다 기존의 재생산을 초래하게 한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이다. 피로사회가 과도한 성과속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류지향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영재집단은 성과압력에 시달리는 대표적 집단 중 하나이다. 생산의 압력에 많이 시달리는 자들은 생산의 압력이 내면화되게 된다. 내면화된 생산의 압력은 결국 여유있는 깊이, 깊이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다. 여유는 새로운 것의 창출을 위해 필요한데 시스템 자체가 억압된 환경일 수밖에 없을 경우 그런 깊이 있는 느낌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적 맥락이 생성되는 것이다. 틀에 박혀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에서는 성실성을 기대할 수는 있어도 창의성이 발휘될 수는 없으며, 양적인 성과에 대한 강조는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어렵다.

‘신성한 불만족(divine discontent)’은 창의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더 나은 아이디어, 더 좋은 산출을 위한 끊임없는 불만족이 창의적 산출을 이끈다(Storr, 2009). Storr가 여기서 말하는 불만족은 궁극의 선 또는 최선을 추구하기에 ‘신성한’ 불만족이다. 하지만 피로사회에서는 신성한 불만족을 경험할 여유가 없다. 신성한 불만족은 시간적 심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피로사회의 성과에 대한 압력은 신성한 불만족을 통한 최상의 산출물에 다다르게 하기보다 적당한 수준의 성과와 산출물에 머무르게 한다. 양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추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즉, 조급함으로 가득찬 많은 성과들이 텅 빈 껍질만을 이룬다는 말이다. 분명 충만함과 공허한 채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성과주의에 급급한 공허한 채움은 창의력을 낼 수 있는 충만함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로 피로사회를 벗어나는 길은 창의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피로사회를 벗어나야 깊이 있는 사색이 가능하고 반성적 상상력이 생길 수 있다. 조급함도 버려야 한다. LTE급 속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다. 하이데거는 조급함의 원인이 정적, 긴 것, 느린 것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무능력에 있다고 지적한다(한병철, 2013). 한병철은 진리의 사색적 고찰을 위한 ‘느긋함’과 ‘머뭇거림’을 통해 ‘오직 일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창의성은 불안과 불확실함을 동반한다. 모호함을 참아내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거듭해야 비로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무수한 실패를 거듭한 끝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실패나 의미 있는 산출의 부재함에 대한 인내’가 요구된다. 300년간 풀리지 않았던 페르마의 정리를 증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Andrew Wiles교수는 7년간 다른 아무런 논문도 발표하지 않은 채 7년간 무수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증명에만 매달린 끝에 결국 페르마의 정리를 완성하게 된다. 최근 대학들의 교수 평가 실태를 고려해 볼 때 프린스턴 대학이 7년간 아무런 논문도 발표하지 않는 Wiles교수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주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울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은 경쟁지향적, 단기적, 양적인 평가시스템 하에서는 고만고만한 수준의 성과와 성취는 넘쳐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와 학문영역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 위대한 산출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와 실패는 존재하기 어렵다. 단기적이고 양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실패를 통한 시행착오보다는 기존 것의 재생산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피로사회에 쏟아지듯 나오는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양의 성과의 파편들에는 향기가 없다. 한병철(2013)의 지적대로 방향성을 잃은 가속화된 성과들은 본질적 결핍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는 창의성의 결핍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창의성을 역설하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며(조한혜정, 2008) 피로사회의 자기착취적 성과주의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 그리고 재생산시키고 있다.

긍정 탓인지 긍정의 부작용 탓인지 많은 현대인들은 ‘바쁘다, 힘들다’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계속 가속 페달을 밟는다. 쉬고 싶다고 하면서도 멈추질 못한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더 얻으려 ‘더, 더, 더’를 반복한다. 그건 내 탓이 아니라 조직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한탄하곤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작 우리 자신이 조직을, 사회를 더욱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관해서도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제품의 사양을 의미하는 ‘스펙’이란 단어가 인간에 대한 수식어가 된지 오래다. ‘스펙’이 상징하는 바는 사회 속의 인간이 그 자신의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노동 상품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릴 수 있는가가 그 사람에게 대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유진홍, 2012).

영재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영재로 선발되기 위해,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더 많은 입상과 수상실적과 풍부하고 화려한 활동경험이 요구된다. 스펙으로 무장한 어린 학생들에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며 더 많은 소진적, 고갈적 노력을 부추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은 좀 더 유연하고 창조적일 것을 요구하지만 성과와 성취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IV. 피로사회의 극복... 궁극의 창의로 이르는 길

피로사회에서 모든 시간은 일의 시간이고, 여가시간마저도 일의 시간을 준비하는 보조적인 의미밖에 지니지 못한다(한병철, 2013). 한병철은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삶에서 ‘나는 멈춘다. 고로 존재한다’의 사색적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말

한다. 그에 의하면 시간의 질을 배제한 양적인 것의 시간은 향기 없는 시간이다. 그는 피로 사회 극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변화가 아닌 사회적 변혁이 필요하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 변화를 가져오려면 다른 시간을 창조하는 시간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활동적 삶’에서 ‘사색적 삶’으로 바뀔 때 비로소 시간의 향기를 찾을 수 있다는 한병철의 주장은 피로에 소진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나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활동적 삶 중심의 가치관에서 사색적 삶 중심의 가치관으로의 이동은 잃어버렸던 시간의 향기를 되찾게 함으로써 우리를 궁극의 창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이다.

한병철이 말하는 사색적인 삶의 복원은 Foucault(2007)의 ‘자기에의 배려’ 개념이나 Kant(1987)의 반성적 판단력과 일맥상통하며, 이들은 우리가 피로사회를 극복하고 궁극의 창의로 나아가기 위한 해안을 제시한다. Foucault의 핵심 개념인 ‘자기에의 배려’는 내면에 대한 성찰과 통치를 통해 권력의 순응으로부터 저항의 주체로 자신을 변용하는 반성능력을 강조한다. 여기서 반성능력이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살이 검토하고 통치하려는 자기수련과 다름 아니다. Foucault의 『주체의 해석학』에서는 자기에의 배려를 위한 자기의 통치 방법을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에의 배려를 통해 Foucault가 의도하는 것은 마음을 성찰함으로써 이제까지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던 유형을 해체하고 새로운 주체의 유형을 발명하는 일이다. Kant(1987) 역시 반성적 판단력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그가 말하는 반성적 판단이란 규정적 판단(기존의 개념이나 규칙을 활용하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즉 기존의 개념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조우할 때 활용되는 판단력이다. 말하자면 규정적 판단의 좌절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반성적 판단이다. 규정적 판단이 규칙과 개념의 엄격한 적용과 이에 일치하는 결과를 산출한다면, 반성적 판단은 불일치와 모순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따라서 반성적 판단은 독창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사색적인 삶이 가능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Wollstonecraft(1989)는 천재 작가는 우리를 느끼게 하고, 평범한 작가는 생각하게(reason)한다고 말한다. 그녀에 의하면 인간 천재성의 가장 행복한 발산은 영감인데, 이러한 영감은 뻑뻑한 일정과 소진된 삶 속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Kant(1987)에 의하면 천재와 모방정신은 완전히 반대이며, 천재 자신조차 그렇게도 풍성한 상상과 사유가 어떻게 결합되었는가에 대한 원리를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가르칠 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과도한 성과주의에서는 모방 외에 새로운 것을 산출하기 어렵다. “더 나은 상태”는 현재와는 다른 그 어떤 상태이다. 현재에 대한 지각이 없다면 현재와 다른 것은 파악할 수 없다. 이제는 현재의 과도한 자기착취에서 벗어나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때이다. 모방이 아닌 새로운 사유와 산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피로사회의 과도한 성과주의는 반드시 지양하고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다.

피로사회의 개념과 철학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피로사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깊은 심심함, 머뭇거리는 능력,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무위의 피로 등의 개념(한병철, 2012)은 영재들의 사회-정서적 측면의 안정과 창의성 함양 등을 고려할 때 숙고의 여지가 있다. 혹시 주변 영재들의 삶이 피로사회에서 말하는 ‘과잉 속의 결핍’과 닮아 있다면 ‘더하기

에 지친 당신에게 빼기 한 모금'이라는 광고 문구처럼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처방이 필요하다. 한병철이 최근 『피로사회』의 후작으로 나온 『시간의 향기』를 마무리하면서 인용한 니체는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달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까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p.181).”

자기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한 기대로 인해 더욱 과도한 성취압박과 자기착취에 노출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영재들에게 피로사회는 ‘무엇이 건강하고 진정한 성취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피로사회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모두 달리는 경주에서 혼자만 느리게 걷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한병철(2012)의 충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충만함과 텅 빈 팍 찬 삶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한병철의 지적은 명심할 가치가 있다.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공허한 팍 찬 삶 속에서 소진되고 있는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영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2012. 9. 13일자 기사: 지난 해 하루 평균 43.6명 자살... 10년 새 2배.
- 김성호 (2012). 과잉활동에서 무위의 활동으로. **안과 밖**, 33, 128-153.
- 문화일보 2011. 4. 11일자 기사: 실패 모르던 영재들 ‘낯선 좌절’ 자살 부른다.
- 박혜진 (2001). **영재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 심리적 적응, 자아 존중감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성희경, 한기순 (2011). 영재의 고민과 상담요구에 대한 개념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18(9), 309-336.
- 윤여홍 (2003). 영재아 상담. 박성익, 조석희, 김홍원, 이지현, 윤여홍, 진석언, 한기순. **영재 교육학원론** (pp. 483-520). 서울: 교육과학사.
- 유진홍 (2012). 피로사회. **노동과 세계**. (2012. 6. 19).
- 윤초희, 윤여홍, 김홍원 (2004). 지적으로 우수한 초등영재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2), 177-196.
- 이득재 (2009). 왜 우리관심은 대학입시까지만인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09. 6. 14).
- 이영미, 한기순 (2012). 영재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 분석: 개념도 기법을 활용하여. **영재교육연구**, 22(4), 893-916.
- 장정일 (2013). 피로사회를 경멸하는 이유. **시사인**. (2013, 1. 12).
- 조한혜정 (2008). **창의성의 논의를 열며**. 서울: 하자센터.
- 진선홍, 양태연, 한기순 (2012). 영재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구조모형 탐색. **영재교육연구**, 22(3), 779-800.

- 한국의철학회 (2012). **피곤한 사회와 게으른 인문학**. 숭실대학교. (2012. 10. 26).
- 한겨레신문 2011. 5. 15일자 기사: 한병철, 신진옥 교수, 피로사회를 논하다.
- 한기순, 유경훈 (2013). 피로사회 속 창의성과 행복에 관한 담론. **창의력교육연구**, 13(1), 55-68.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병철 (2013). **시간의 향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 Adderholdt-Elliott, M. (1987). *Perfectionism: What's so bad about being good?*. Minneapolis: Free Spirit Publishing Inc.
- Dweck, C. S. (2007). The perils and promises of praise. *Educational Leadership*, 65(2), 34-39.
- Ehrenberg, A. (2010). *The Weariness of the Self: Diagnosing the History of Depression in the Contemporary Age*. Montreal, CA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Foucault, M. (2007). 주체의 해석학 [심세광 역]. 서울: 동문선. (원본출간년도: 1981-1982).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ollingsworth, L. S. (1975). *Children above 180 IQ*. New York: Arno Press, reprint of the 1942 edition.
- Honneth, A. (2000). *Das Andere der Gerechtigkeit. Aufsätze zur praktischen Philosoph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 Kant, I. (1987). *Critique of judgement*. Trans. Werner S. Pluhar.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mpany.
- Silverman, L. K. (1993).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New York: Love.
- Storr, A. (1988). *Solitude*. NY: EYA.
- Webb, J. T., Meckstroth, E. A., & Tolan, S. S. (1982). *Guiding the Gifted Child: A practical source for parents and teachers*. Gahanna, OH: Ohio Psychology Publication Company.
- Webb, J. T. (1994).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 A. Hellen, F. J. Monks & A. 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NY: Pergamon Press.
- Whitemore, J. R. (1980). *Giftedness, conflict and underachievement*. Boston: Allan & Bacon.
- Wollstonecraft, M. (1989). Hints. In J. Todd & M. Butler (Eds.), *The works of Mary Wollstonecraft* (pp. 271-276). NY: New York UP.

= Abstract =

## Discourse on the Gifted and Gifted Education in the Fatigue Society

Ki-Soon Ha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explore how the concepts of fatigue society and self exploitation are related with the gifted and gifted education. Gifted students' burnout are the result of an excess of positivity. The violence of positivity stems from over-producing, over-achieving or over-communicating. Especially, this paper tries to warn gifted students' maladaptive perfectionism, high expectations of themselves and their surroundings, high task commitment, and excessive self criticism could make the gifted the high risk group who burnout themselves in this fatigue society. In addition, it is discussed how the gifted students' suicid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issues of fatigue society and self exploitation structurally. Most importantly, we examine that why and how the concept of fatigue society results in ultimate decline of creativity. Finally, we discuss some ways to overcome this over-achieving fatigue society and their implications in the aspects of gifted students' creative lives and products.

**Key Words:** Fatigue society, Over-achieving society, Self exploitation, The gifted

1차 원고접수: 2013년 12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13년 12월 30일
최종게재결정: 2013년 12월 30일